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157

신문의 선거 보도행태와 사진이미지 활용
-5대 중앙일간지의 19대 총선보도를 중심으로-
Election Report Practices of Newspaper, Inclusive of the Utilization of Visual Images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Dong-Ryul Roh(rohdory@sungshin.ac.kr)

요약

신문의 선거 보도행태는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적 보도행태는 신문이 자신들의 이념과 동일한 정당의 선거 운동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내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신문의 19대 총선 보도에서도 경마식 보도, 게임 방식의 대결구도 조장, 정책 중심 선거 배제, 높은 비중의 해설기사, 부정적 이슈 중심 보도 등의 전형적인 보도관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이슈 중심인물로 기사가 집중하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이미지는 해설기사와 정치공방 기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진이미지 활용은 이슈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과는 다른 맥락의 사진을 게재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보도관행 | 선거운동의 대리전 | 세대 투표 | 사진 이미지 | 맥락 |

Abstract

At the recent 19th General Election, Korean papers waged a surrogate war for the parties they share ideology with. All the conventional practices remained the same - the horse race-like presentations, furthering of confrontations, disregarding policy issues, allocating larger space for commentaries and negative issues, and etc. On top of these, papers began to focus on generational conflicts and individuals at the center of widespread attention and controversies, as a new trend. Photo images are largely used in the commentaries and articles dealing with confrontational or controversial situations. Of course, while the visual images seem to reinforce the emotional appeal of the messages papers try to get across, the potential problems need be noticed that could rise when irrelevant images are used.

■ keyword : | Conventional Report Practice | Surrogate War for the Parties | Generation Voting | Visual Image | Context |

Ⅰ. 문제 제기

언론의 관행적 선거보도 행태는 대의민주주의 구현에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청산할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디어정치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후보검증과 정책검증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견인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에 있

접수번호 : #120604-004
접수일자 : 2012년 06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7월 10일
교신저자 : 노동렬, e-mail : rohdory@sungshin.ac.kr

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행적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자체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기능은 주로 프레이밍(framing)과 의제설정(agenda-setting)의 시각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뉴스 보도에 있어서 프레이밍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택, 강조, 삭제, 그리고 편집을 통해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상으로 정의된다[1]. 따라서 미디어는 수용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어떤 의제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의제가 덜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

미디어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게 되면 그 이슈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수용자가 그 이슈들을 얼마나 머릿속에서 잘 떠올리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인지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된다. 여기서 인지적 측면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이슈의 개념, 사실 등을 의미하며, 정서적 측면이란 미디어에서 이슈를 어떤 논조로 다루며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지를 의미한다[3]. 결국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특정 이슈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줌으로써 수용자가 그것을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도록 유도한다[4].

개인이 어떤 사건을 관찰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프레이밍은 경험의 조직화와 같은 것으로, 개인은 각기 다른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각 개인의 관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5][6]. 프레이밍을 의제설정의 측면에서 재정의 하면, 프레임은 미디어가 어떤 이슈 혹은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특정 속성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디어에서 어떤 이슈를 보도할 때, 그 이슈의 속성들을 선택하여 강조하는 반면 다른 속성들은 배제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어떻게 그 이슈를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인들도 백지상태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구축되어 있는 스키마(schema)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미디어는 선거 기사를 제공할 때 일정한 틀을 도입함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유목화해서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미디어는 특정 선거 이슈에 대해, 이슈와 관련된 보다 큰 그림의 맥락적 판단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이슈와 맥락적으로 무관하거나 특이한 사건에만 초점을 두도록 유도한다[5].

따라서 언론이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벤트를 보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의 19대 총선보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존의 보도태도와 비교하여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문자기호 이외에 사진이라는 영상기호가 활용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언론의 선거 보도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선거 보도관행에 대한 선행 연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체의 눈부신 발전이 진행되면서 언론이 현대정치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들이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그동안의 선거보도 행태 연구는 신문과 방송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특징과 문제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1987년의 13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 1991년의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한 백선기는 우리나라 신문의 선거보도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horse-race journalism)와 후보자들 간의 '갈등' 및 '대결구도'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장(戰場)구조를 가장 큰 특징으로 제기하였다. 다음으로는 불분명한 정책 비교, 학연과 지연 중심 보도, 기존의 여당과 야당 중심의 지면 구성(무소속이나 정치 신인에 대한 무관심), 높은 해설기사 비중, 미확인 보도와 추측성 기사의 난무, 불명확한 여

론조사의 제시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7-9].

2000년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을 분석한 백선기(2000)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정당 대표 중심 보도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구도로 보도되는 기현상을 조장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당시 정당 대표를 초청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각 정당대표의 자질이나 위치 및 특정 사안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지나치게 각 정당의 대표들에게만 주목하게 하고 그들의 대권주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언론은 그대로 중계보도하면서 총선이 마치 대선처럼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10].

2002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의 선거보도 결과를 분석한 안차수(2006)는 '무관심 유발자'로서의 언론과 '중앙정치의 대리인'으로서의 언론이라는 특징으로 종합하면서, 월드컵 열기로 인해 지방선거 보도량이 적었다는 특징과 더불어 경마식 저널리즘, 정책이 빠진 선정적인 보도를 주된 특징으로 제기하였다[11]. 특히 지방선거를 이회창과 노무현이라는 양당 대선 후보 간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대선의 전초전 성격만 부각시켰다는 특징은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신문의 선거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은 주로 편향적 보도, 부정적 캠페인 중심의 보도, 경마식 보도,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 잘못된 인용보도, 비과학적인 보도, 지역감정 자극[12-16], 미진한 주요 이슈 보도[17-20]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이미지 구축은 언론매체로부터, 후보자의 정책은 주로 홍보물을 통해 흡수한다는 연구결과[21]가 반증하는 바와 같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글쓰기와 동일한 의미로 인식[22]되고 있는 사진이미지가 유권자들을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식[23]에 대한 연구는 기존 언론의 보도관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언론의 선거보도 관행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2012년도에 실시된 제19대 총선 보도에 나타난 보도의 특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보도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해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12년도에 실시된 19대 총선 과정에서 중앙일간지들의 보도 행태와 이미지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19대 총선 보도의 특징을 1992년과 2002년 연구결과로 제시된 선거 보도관행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언론의 선거보도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진 이미지 활용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이전의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을 선거 보도의 영역으로 흡수하여 선거 보도에 있어 사진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5대 중앙일간지의 19대 총선 보도행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2. 특히 이슈보도에 나타난 보도행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일간지의 사진이미지 활용 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특히 이슈보도에서의 사진이미지 활용 방법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19대 총선 공식선거일인 3월 29일부터 투표일인 4월 10일(13일 간)까지 중앙 5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중앙 5대 일간지에 게제 된 선거 관련 기사 총 969건을 기사 유형과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기사 유형은 스트레이트/스케치 기사, 해설/기획기사, 사설/칼럼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기사 내용은 정당정책, 후보정책, 정당동정, 후보동정, 정치공방, 정책공방, 판세와 지지도 분석, 그리고 기타

기사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기사는 다시 사진 게재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 분석과 개표 이후 중앙 일간지의 선거 결과 분석 기사들을 토대로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 3가지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이슈 3가지에 해당하는 기사들만을 별도로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일간지의 총선보도 행태와 사진이미지 활용 방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사 분석에는 총 8명(일간지 담당 5명과 이슈 담당 3명)의 코더들이 기사 유형과 기사 내용을 정해진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코더들은 그룹별로 실제 연구에 앞서 3월 27~28일 간, 특정 일간지 기사를 코딩하는 사전조사 과정을 2차례 거쳤으며, 3월 29일~30일 일간지 기사를 대상으로 3차 사전조사 과정을 거친 후 코딩을 하였다.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로 측정한 코더 간

신뢰도(intercorder reliability) 결과는 각각 .87(중앙 일간지 기사 담당 5명)과 .89(이슈 담당 3명)로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실제 분석을 실시하면서 불확실한 아이템의 경우는 분석기간 중 3차례에 걸친 회의 과정에서 코더와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선거 보도관행의 구조화

연구문제1-1의 연구를 위하여 5대 중앙일간지의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기사 유형과 기사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표 2]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에 따라 선거 보도관행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사 유형별 보도 내용

기사 유형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스트레이트/스케치	56	66	36	42	34	234
해설/기획	110	75	119	115	118	537
사설/칼럼	27	38	40	51	42	198
총계	193	179	195	208	194	969

먼저 해설기사의 높은 비중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는 주요 기사 순위의 편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설기사의 경우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당 정책이나 정당 동정, 판세분석 등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의견을 삽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언론의 보도 태도는 뭔가 이슈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당의 선거 쟁점이나 정책 대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선'을 중심으로 한 입후 보자들 간의 전략 및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사설/칼럼 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선거 유세기간 중,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기사 총 198개 중에 조선일보에서는 27개를, 한겨레에서는 51개를 게재하여 대조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겨레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이념에 따른 선거관련 의견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 기사 내용별 보도 내용

기사내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정당정책	5	2	7	0	29	43
후보정책	0	3	3	3	0	9
정당동정	32	16	16	21	17	102
후보동정	15	16	10	8	6	55
정치공방	55	41	54	78	48	276
정책공방	5	5	15	15	3	43
판세/지지도	47	40	40	37	42	206
기타	34	56	50	46	49	235
총계	193	179	195	208	194	969

두 번째로는 정책이 실종된 선거보도의 특징이다. 정당정책, 후보정책, 정책공방 기사는 총 기사 중 10%를 넘지 못하는 비율에 그치고 있다. 적은 기사 수와 더불어 복지정책과 과잉복지론, 교육정책 등 이외에 유권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비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의 정당정책 기사의 수(29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향은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한 결과이다.

세 번째 특징은 '동정'과 '판세'가 판을 치는 언론의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로 인해 선거를 '게임 즐기기' 방

식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정'과 '판세' 기사는 그야말로 박근혜와 한명숙의 동선 따라가기,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한 격전지 소개, 그리고 지지율 소개 방식을 통한 토너먼트 게임을 관람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신문마다 '문재인', '낙동강 벨트', '박근혜 부산 5회 방문', '안철수' 관련 기사를 부각시키면서 총선은 자연스럽게 대선 분위기로 고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네 번째 특징은 중앙일간지의 선거보도는 과다한 정치공방으로 치우쳐 마치 정당의 이념 대리전을 치루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 선거유세기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해군기지, 핵 안보 정상회의, 한미 FTA 이슈 등에서부터 총선의 기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새누리당이 정동영 출마 지역구에 김종훈을 공천하면서 분위기는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식 선거유세 기간이 시작되면서 그대로 이어져, 5대 일간지는 정치공방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하였다. 복지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마저도 정치 공방의 형식으로 게재하였고, 색깔론과 관련된 기사가 터질 때마다 일간지들은 각 정당의 이념을 대변한 공방기사를 게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간지들이 비교적 많은 양(24.3%)으로 다룬 기타기사는 주로 투표 독려 기사, 재외동포 선거함 설치, 투표용지 문제, 청와대 반응, 시민 반응 등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예비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의 동정이나,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유명인, 연예인들의 선거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다른 총선과는 차이를 만들어 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거 대리전 양상의 이슈 공방

연구문제1-2의 연구를 위하여 중앙일간지의 이슈 선정과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인 중앙일간지들이 조사 기간 중에 보도한 기사 내용과 개표 이후 중앙일간지들의 자체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19대 총선에 영향을 미친 핵심이슈는 민간인 불법사찰, 김용민 막말 파문, 문대성 논문 표절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표 3. 선거 이슈의 성격

	민간인 불법 사찰	막말 파문	논문 표절
쟁점	사실 관계	정서적/도덕적 가치	사실 관계
소통방식	사실적 커뮤니케이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사실적 커뮤니케이션
수용방식	정치적/논리적 수용	정서적 수용	논리적 수용
보수언론	정권의 보편성 강조	저질/양아치/패륜	무대응
진보언론	원론적인 도덕성 결핍 강조	불법사찰에 비해 덜 심각	막말이슈보다 더 중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의 성격을 비교하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불법사찰이나 논문표절 사건은 사실 관계가 쟁점인 것에 반해 김용민 막말은 도덕적 가치를 적용하는 정서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중앙일간지의 이슈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정치적이거나 논리적 수용 방식의 성격을 지니는 불법사찰이나 논문표절

문제에 비해 정서적 수용 성격이 강한 막말 파문을

보도하면서 보수지는 '저질', '양아치', '패륜' 등의 정서적으로 강한 부정성을 지니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반해, 진보지들은 불법사찰이나 논문표절 문제가 막말 파문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임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간인 불법사찰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민간인 불법사찰 이슈 보도 내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전체 기사		34	45	43	83	92	297
기사 유형	스트레이트	26	31	26	38	53	174
	해설/기획	0	4	11	36	24	75
	사설/칼럼	8	10	6	9	15	48
프[1] 레임	문제제기	19	31	27	80	70	227
	갈등	5	6	14	0	9	34
	책임귀인	7	7	2	2	12	30
	도덕성	3	1	0	1	1	6

민간인 불법사찰 이슈 보도는 진보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수지는 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진보지들은 보수지에 비해 해설/기획기사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5개 일간지 모두 문제제기 프레임의 비중이 높았으며, 보수지의 경우는 책임귀인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지들은 불법사찰 이슈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덕성 차원의 잘못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이나 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 사례 등을 강조하면서 책임귀인과 갈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보도태도로 여당의 방어논리를 부각시키는 데 치중하였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일보는 불법사찰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박정희 정권의 망령', '박정희 정권의 유전자', '이명박근혜'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현 정부의 비도덕성과 박근혜 이미지를 연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총력을 다 하였다. 이러한 보도관행은 중앙일간지가 정당의 선거전을 대리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이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막말 파문 이슈 보도 내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전체 기사		18	14	15	11	10	68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13	6	7	5	6	37
	해설/기획	2	4	5	2	3	16
	사설/칼럼	3	4	3	4	1	15
프레임	문제제기	17	10	9	6	9	51
	갈등	0	1	1	0	1	3
	책임귀인	1	1	1	4	0	7
	도덕성	0	2	4	1	0	7

1) 프레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정성호(2009)[5]를 참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제제기 프레임은 사건(발단, 진행, 결과 등의 과정 및 관계)을 보도함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 수준에 초점을 두는 경우를 말하며, 갈등 프레임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에 초점을 두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책임귀인 프레임은 사건 관련 주체의 행위와 원인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경우, 도덕성 프레임은 사건의 결과에서 유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프레임 코딩에서는 해당기사의 핵심적(1차) 초점에 따랐다. 기사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프레임에 코딩이 가능할 수 있으나 1차적 초점이 어느 프레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코딩하였다.

막말 파문 이슈를 분석한 내용은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의 보도량이 많으며 보수지의 경우는 문제제기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덕성을 부각하는 반면, 한겨레의 경우는 책임귀인 프레임 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슈에 비해서 보수지와 진보지 간의 보도량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보수지의 공세에 진보지가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견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6]에 나타난 논문표절 이슈에서는 진보지와 보수지의 보도량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이슈는 경향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부각한 것에 반해 보수지들은 무대응 전략으로 의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논문 표절 이슈 보도 내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전체 기사		1	1	0	2	8	12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1	1	0	1	3	6
	해설/기획	0	0	0	0	3	3
	사설/칼럼	0	0	0	1	2	3
프레임	문제제기	1	0	0	1	5	7
	갈등	0	1	0	0	0	1
	책임귀인	0	0	0	1	1	2
	도덕성	0	0	0	0	2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대 총선 보도에 있어서 중앙일간지들은 이슈를 선정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정치이념과 부합하는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여 선거 대리전을 치루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해설/기획기사나 사설/칼럼기사를 통해 반영되었고,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정치공방 기사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슈보도에 있어서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중앙일간지들의 보도관행은 일반 선거 보도와 동일한 전형적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이념의 대리전 양상의 이미지 공방

연구문제2-1의 연구를 위하여 조사대상 일간지의 사진이미지 활용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9대 총선보도에서 사진이미지는 기사유형으로는 '해설/

기획기사(247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기사내용에서는 '판세/지지도(104건)', '기타(99건)', '정치공방(87건)', '정당동정(66건)'의 순으로 게재되었다. 이중에서 '판세/지지도'는 후보의 얼굴을 증명하는 사진이 대부분이었으며, '기타'는 정당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기사들을 분류한 항목들이 많았다. 선거와 관련된 핫이슈들을 기사화하는 '정치공방'과 '정당동정' 기사에 사진이미지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이미지는 기사내용을 정서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치공방이나 정당동정과 같은 이슈에 대해 사진이 없는 기사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프레임설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표 7. 사진 게재 유무에 따른 기사 분류[2)]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스트레이트/스케치	56	37	66	33	36	22	42	24	34	25	234	141
		19		33		14		18		9		93
해설/기획	110	52	75	36	119	73	115	55	118	58	537	274
		58		39		46		60		60		263
사설/칼럼	27		38		40		51		42		198	
총계	193	89	179	69	195	95	208	79	194	83	969	415
		77		72		60		78		69		356
정당정책	5	2	2	2	7	2	0	0	29	11	43	17
		3		0		5		0		18		26
후보정책	0	0	3	2	3	3	3	3	0	0	9	8
		0		1		0		0		0		1
정당동정	32	22	16	7	16	13	21	8	17	16	102	66
		10		9		3		13		1		36
후보동정	15	9	16	8	10	8	8	4	6	3	55	32
		6		8		2		4		3		23
정치공방	55	20	41	13	54	19	78	24	48	11	276	87
		35		28		35		54		39		191
정책공방	5	2	5	2	15	5	15	5	3	0	43	14
		3		3		10		10		3		29
판세/지지도	47	18	40	21	40	23	37	16	42	26	206	104
		29		19		17		21		16		102
기타	34	17	56	21	50	24	46	18	49	19	235	99
		17		35		26		29		30		137

연구문제2-2의 연구를 위하여 사진이미지 활용 방법을 이슈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진이미지를 가장 많이 활용한 이슈는 불법사찰로 나타났으며, 논문 표절 의혹은 거의 사진이 게재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은 해당 후보자의 증명사진 이외에는 이미지화 할 아이템이 적었기 때문이며, 불법사찰은 공식 선거기간의 시작과 함께 제기되면서 유세기간 내내 이슈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사진이미지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점은 진보지는 불법사찰에, 보수지를 대표하는 조선일보는 막말파문에 보다 더 많은 양의 사진이미지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앙일간지들은 이슈 선정과 마찬가지로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사진이미지를 활용하는 전략에서도 이념 성향에 따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이슈 별 사진게재 기사의 수

이슈	사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계
불법사찰	유	14	13	18	39	35	119
	무	12	22	21	35	42	132
막말파문	유	7	4	4	4	4	23
	무	8	6	8	3	5	30
논문표절	유	1	1	0	1	3	6
	무	0	0	0	0	3	3

특정 사건의 이슈화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전달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서사성과 신화성이 곁들여져 있을 경우에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이슈는 단순한 사실 자체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공격저널리즘의 구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이슈화에 사진이미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공격저널리즘이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막말 파문 이슈의 경우에는 이슈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나꼼수 멤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막말 이슈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나꼼수 멤버들은 시청 광장 모임(4월 9일), 부산 사상 방문(4월 10일) 등의 이벤트를 벌이므로 해서 중앙일간지들이 사진이미지를 편집하기 용이한 환경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반해 불법사찰의 공격 대상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슈와 관련된 사진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법사찰과 관련성이 적은 추상적인 사진이미지들을 게재함으로써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일간지의 사진이미지 활용에 있어서 강조하고

2) 하나의 칼럼의 위는 사진이 있는 기사의 수, 아래는 사진이 없는 기사의 수를 의미/ 사진 유무를 적시한 기사에서는 칼럼과 사설의 기사 수는 배제된 것임.

싶은 것은 기사 내용의 맥락과 관계없는 사진을 마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편집함으로써 기사내용을 정서적으로 강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한 언론인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불법사찰 문제를 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3]하였는데, 게재된 사진들은 불법사찰 사건과는 관계없는 맥락(외교업무 수행 중의 사진)의 사진들이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큰 근심에 빠져있는 듯 한 사진 속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기사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기사내용을 정서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조선일보도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김용민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실제 맥락과는 상관없는 기사 내용에 삽입함으로써 마치 기사내용과 사진의 내용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사진의 텍스트를 바꾸는 의도성을 나타냈다. 개표 이후 "김용민 후보와 나꼼수의 '양아치 정치'가 철퇴를 맞았다"는 내용의 기사[4]를 다루면서, 선거기간 중에 노인정을 방문해 사죄하는 김용민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여 통곡하듯 슬퍼하는 모습이 철퇴를 맞은 이후의 참회하는 모습처럼 느껴지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맥락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기사내용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효과처럼 오해하도록 게재하는 사례는 추측기사의 경우라도 마치 그 기사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의도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의도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V. 결론

5대 중앙일간지에 나타난 19대 총선 보도행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선거보도의 부정적인 행태는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14대 총선 전후시점에 실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5]과 19대 총선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연과 지연 구도의 보도성향이 19대 총선보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와 세대 간의 투표 갈등으로 대체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과 지면 구성에 있어서 집권여당의 중심에서 이슈 중심 인물로 집중하는 현상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14대 총선보도와 19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관행 특징 비교

1992년 14대 총선 시점	변화	2012년 19대 총선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	없음	경마식 보도 관행
갈등 및 대결구조의 전장(戰場) 구도	없음	격전지, 판세 분석 기사의 범람
학연, 지연 구도	유사 대체	진영 논리와 세대 투표 강조
선거 쟁점, 정책의 차이 보도 소홀	없음	선거 쟁점과 정책에 대한 보도 자체가 부족
집권여당 중심의 지면 구성	유사 대체	이슈 중심 인물로의 집중현상
스트레이트 기사의 중요순위 편향성 너무 많은 해설기사	없음	너무 많은 해설기사
미확인 보도와 추측기사 난무	없음	진영논리와 결합하여 갈등 조장에 크게 기여
너무 많은 여론조사와 부정확성	없음	너무 많은 판세분석 기사
선거상황의 부정적 현상에 과다 초점	없음	(부정적) 이슈 중심의 선거 보도
총선을 대선 구도로 보도	없음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보도

이러한 관행은 사진이미지 활용방식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은 신문의 선거 보도 문제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영상이미지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영상이미지가 선거 보도행태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선거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진영 논리와 결합되면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미디어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젊은 세대가 SNS로 대변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12월 대선에서는

3) 대표적인 사례는 한겨레신문 3월 29일 3면, 31일 3면, 그리고 4월 2일 1면에 게재된 사진들이다.

4) 조선일보 4월 13일자 4면 기사 참고.

5) 언론의 기존 선거보도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백선기의 연구[6]를 토대로 하였음.

미디어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앙일간지가 선거 관련 핵심 이슈보도에서 문제해결보다는 정략적 차원에서 터뜨리고, 이용하고 보자는 식의 보도 행태를 일삼을 경우 유권자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와 선망이 줄어들고, 이는 선거보도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궁극적으로 정치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믿지 않는 언론을 이용해 유권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면 정치인과 유권자는 물론 언론까지 포함해 모두가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간 보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일간지가 언론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여부는 선거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거 보도관행 연구와 더불어 사진이미지의 활용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 선거 보도관행에 대한 연구에 비해 사진이미지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극히 적어 양적 조사만으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사진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진이미지는 물론 영상이미지 분석을 통해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J. Tankard, L. Henderickson, J. Silberman, K. Bliss, and S. Ghanem, "Media frames: Approaches to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Boston, MA., 1991.

[2] M. E. McCombs and D. L. Shaw,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6, No.2, pp.176-187, 1972.

[3] 반현,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5단계 진화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제3권, 제2호, pp.7-52, 2007.

[4] S. Iyengar, "The accessibility bias in politics: Television news and public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2, pp1-15, 1990.

[5] Goffman, E. and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London: Harper and Row, 1974.

[6] 정성호, "선거보도의 유형에 관한 연구;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13권, pp.135-175, 2009.

[7] 백선기, "한국 신문의 비정상적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 6.29 선언 이후의 중앙일간지들의 보도관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28호, pp.213-237, 1992a.

[8] 백선기, "한국신문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14대 총선에 대한 몇 가지 제언", 한국언론학회 제6차 <쟁점과 토론> 포럼, pp.19-30, 1992b.

[9] 백선기, "한국 신문의 선거보도 경향과 심층구조; 제15대 총선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39호, pp.122-179, 1996.

[10] 백선기, "대통령선거와 구분되지 않은 제16대 총선 보도경향 및 구도. 저널리즘 비평", 제30호, pp.14-19, 2000.

[11] 안차수, "5.31 지방선거 보도 현황과 문제점;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pp.51-74, 2006.

[12] 강명구, "시민 배제의 정치와 민의 배제의 선거보도", 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 <제14대 대선 보도 감시활동 종합보고서>, pp.247-256, 1994.

[13] 권혁남, *15대 국회의원 총선보도 분석: 한국 언론과 선거보도*, 나남, 1997.

[14] 권혁남,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보도를 중심으로", 신문학보, 제26호, 1991.

[15] 김정기, “시민의제 위주의 하의상달식 선거보도 연구; 시민저널리즘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1호, pp.174-216, 2002.
[16] 유선영, *한국 언론의 정치 선거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1999.
[17] 김정명, “13대 대통령선거 보도 검증; 방송”, 신문과 방송, 1월호, pp.27-28, 1988.
[18] 원우현, “13대 대통령선거 보도 검증; 언론보도 총평”, 신문과 방송, 1월호, pp.19-23, 1988.
[19] 이관열, “14대 총선보도 검증; 방송”, 신문과 방송, 4월호, p.96, 1992.
[20] 주돈식, “13대 대통령선거 보도 검증: 신문”, 신문과 방송, 1월호, pp.24-26, 1988.
[21] 차영란,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 유권자들의 정보채널 이용 행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145-156, 2011.
[22] 김지영, “디지털시대 ‘사진쓰기’의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156-163, 2012.
[23] 노연숙, 하동환, "사진이미지의 감성에 대한 언어적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182-195, 2012.

저 자 소 개

노 동 렬(Dong-Ryul Roh) 정회원

- 2005년 ~ 현재 :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2006년 9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방송 산업, 방송 콘텐츠